

운 환 소 식

SK (주)

국내 정유사 최초로 해외 석유물류기지 확보

국내 최대 에너지/화학 기업인 SK(주)가 국내 정유사 최초로 아시아 석유 거래의 중심지인 싱가포르의 석유화학단지에 대규모 석유 물류기지를 확보하고 '亞太지역 에너지/화학 新메이저'로의 도약을 위한 해외 물류網 구축에 나섰다.

SK주식회사(대표 : 신헌철, www.skcorp.com)는 1월11일 싱가포르의 주룽섬(Jurong Island)에 건설 예정인 대규모 석유물류기지의 지분 15%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물류기지는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해 있는 싱가포르의 주룽섬에 530만 배럴(84만 m3)의 석유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와 입출하 설비인 부두로 구성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 2006년 7월부터 상업운영에 들어간다.

이 사업에는 총 2억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며, ▲두바이 국영석유회사인 ENOC(Emirates National Oil Company) 산하의 석유터미널 전문회사인 호라이즌 터미널(HTL : Horizon Terminals Ltd., 지분율 52%), ▲한국의 SK주식회사(지분율 15%, 싱가포르 현지법인인 SKEA(SK Energy Asia Pte Ltd.)를 통해 투자), ▲쿠웨이트의 전문 석유 트레이딩 회사인 인디펜던트 석유(IPG : Independent Petroleum Group, 지분율

15%), ▲세계적인 전문 석유 트레이딩 회사인 비톨(Vitol)의 자회사인 말탱크(Martank B.V., 지분율 10%), ▲아프리카 지브티에 소재한 투자전문회사인 보레(Boreh, 지분율 8%)가 주주로 참여한다.

SK(주)는 싱가포르 석유물류기지를 통해 아시아 석유 거래의 중심인 싱가포르와 고성장 지역인 동남아 지역에 대한 수출 및 트레이딩(Trading)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에도 물류기지를 확보해 '韓-中-싱가폴'을 잇는 석유물류網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SK(주)는 이 같은 석유물류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亞太지역 석유 트레이딩 분야의 메이저 플레이어(Major Player)'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한편, SK(주)는 금년 초 자원개발과 석유/화학/석탄 등 해외사업을 총괄하는 R&I (Resources & Internaional)부문을 신설하고, "亞太지역 에너지/화학 新메이저"로의 도약을 선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에너지사업의 업스트림(Upstream) 분야인 유전/가스전 개발 등 자원개발 분야 강화, ▲석유/화학 트레이딩(Trading) 분야에서 亞太지역 메이저 플레이어(Major Player)로서의 입지 구축, ▲중국 시장에서의 거점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 전략 지역 진출을 선정하고 중점 추진하고 있다.

윤활소식

LG-Caltex 정유(주)

GS, 새로운 그룹 CI 발표

GS(대표: 許昌秀 회장)는 15일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새로운 CI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許昌秀 GS 회장은 이날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LG계열에서 분리 승인을 받은 이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CI를 발표하고 계열분리에 따른 소감과 사업전략 등 경영전반에 대해서도 폭넓게 언급했다.

GS는 이번 CI 개발을 위해 (주)LG와의 회사분할을 결의한 지난해 4월 미국의 세계적 CI 전문회사인 Landor社를 심벌마크와 로고 디자인업체로 선정하였으며, GS 자회사 및 계열사들의 사업영역, 비전, 고객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안을 검토한 끝에 이날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CI는 Orange, Green, Blue 등 3색을 기본 Color로 하고 있는데, Orange Color는 정유의 에너지가 상징하는 역동성을, Green Color는 유통/서비스 등의 생활편의 사업군의 성장과 배려를 표현하였으며, Blue Color는 투명경영을 통해 최고를 지향하는 리더십을 상징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태양, 하늘과 바다, 대지를 아우르는 Simple하면서도 Dynamic

한 느낌을 주도록 하였다.

새로운 CI는 3월 31일을 기해 회사이름을 GS칼텍스로 교체키로 한 LG칼텍스정유뿐만 아니라, GS건설(LG건설), GS리테일(LG유통), GS홈쇼핑(LG홈쇼핑) 등 자회사 및 계열사별로 잠정적으로 정한 회사명에 이번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을 적용, 3월 계열사별로 주주총회에서 상호변경 승인이 후 공식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GS는 또한 3월 말경 CI선포식을 간소하게 치루기로 했으며, GS 브랜드를 적극 알리기 위해 선포식 이후 자회사 및 계열사별로 대대적인 홍보·광고 활동을 전개해 조기에 GS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許昌秀 GS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단 출범 초기에는 LG로부터의 계열분리에 따라 에너지·유통중심의 서비스 전문 지주회사로서 위상을 다지면서 ‘독자경영’의 밑그림을 그려나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며, 양가의 인화와 동업의 정신은 계승하되, GS차원의 차별화된 사업선택과 투자 집중화를 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許 회장은 “GS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고객과 임직원의 가슴 속에 GS의 고유한 정체성이 하루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GS의 정체성 조기 확보를 우선과제로 꼽고, “외형적 변화와 함께 고객과 만나는 모든 분야에서 GS가 최고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혁신도 동시에

운활소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許 회장은 또 "3월말쯤 GS 전체의 비전과 성장전략을 수립하여 미래 청사진을 구체화할 것이며, 계열사도 각자의 사업영역에서 내실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핵심역량을 강화해 10년, 20년 후에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GS만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許 회장은 또 "조직을 바르고 투명하게 가져가야 하며 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자회사 및 계열사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만들고 싶다"며 무엇보다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정착시켜 세계최고의 선진 지주회사체제로 발전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許 회장은 이에 따라 "지주회사 경영의 기본방침은 자회사들이 이사회 중심의 독립경영을 강화하고 자회사 및 계열사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영형태보다는 소수정예의 인력으로 자회사들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許 회장은 이를 위해 "3월말쯤 '고객'과 '미래'를 중심으로 한 경영이념과 GS의 장래상 및 중장기 성장전략을 포함한 비전을 확정짓고 자회사 및 계열사의 가치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체계

적인 조직을 갖추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許 회장은 또 에너지, 유통서비스 전문그룹을 표방하고 있는 GS그룹이 강남시대 개막을 계기로 '에너지, 유통명가'로 도약한다는 목표아래, "에너지 및 유통관련 자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GS그룹을 우선 유통분야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한 뒤 사업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유통 선도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許 회장은 이를 위해 "경쟁력있는 핵심사업에 재원을 중점 투자해 사업의 집중력을 높이고 자회사 및 계열사의 유통관련 사업에서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내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LG칼텍스정유의 유통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유통사업 구조를 더욱 튼튼히 함으로써 단순한 고객만족의 차원을 넘어 고객접점에서 고부가 가치 서비스 차별화를 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許 회장은 하지만 "具合와 許씨 일가가 지난 57년간 아름다운 동업을 거쳐 아름다운 이별을 했기 때문에 LG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영역에 진출하지 않는 등 상호존중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며, 사업시너지를 위한 LG와 GS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GS는 지난해 매출이 약 22조원으로 추정되며, 올해는 약 24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활소식

토탈이수오일(주)

ISO/TS 16949 : 2002 인증획득

토탈이수오일주식회사(대표 : 니콜라스 웰만/사진 오른쪽)는 2004년 12월 2일 ISO/TS 16949 인증을 획득하고 12월 17일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여 SGS인증기관(대표 : 이브 에르메스)으로부터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니콜라스 웰만 사장은 이날 축사를 통하여 “전 임직원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8개월간의 짧은 기간안에 인증을 획득한 것은 우리회사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였다”고 격려했다

ISO/TS 16949란 ISO 9001을 근간으로 하여 미국의 자동차 Big3사인 다임러 크라이슬러, GM, 포드와 유럽의 자동차사인 푸조, 르노, 폭스바겐, 피아트, BMW등 미국

과 유럽의 자동차 협회가 참여하여 결성된 IATF(International Automotive Task Force)에서 제정한 자동차 관련 품질시스템 요구사항(설계, 개발, 생산, 설치 및 서비스)으로 유럽과 미국을 통합하는 글로벌규격이다.

최근에는 전 세계의 자동차사에서 모든 협력업체에 대하여 시한을 정해놓고 ISO/TS 16949인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거래의 필수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토탈이수오일(주)는 이러한 국내, 외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4년 4월 품질경영팀 주관하에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TFT를 구성한 후 ISO/TS 16949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고객지향의 프로세스를 설계한후 표준화 작업을 거쳐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시키면서 문제점을 도출, 보완하므로써 ISO/TS 16949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번 인증획득으로 고객에게 보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향후 세계시장 진출에 유리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주)한국발보린

SUV 전용 엔진오일 출시

(주)한국발보린은 고급 SUV(Sports Utility Vehicle)를 위한 전용 엔진오일인 '발보린

운할소식

터보 SUV 5W40(Valvoline Turbo SUV 5W40)'을 2005년 1월부터 국내 판매한다.

일반 승용차에 비해 SUV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소음과 차체 떨림을 최소화하여 일반도로주행에서 뿐만 아니라, 오프로드에서도 연비와 승차감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커먼레일 등 승용형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SUV는 가솔린 엔진과 비교해 운행 중 엔진오일 온도가 높아져 오일소모가 많아지고 산화되기 쉬워 엔진유회환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마찰 및 마모가 증가되고, 심하면 엔진이 과열되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터보 SUV는 까다로운 엔진테스트를 통해 고온에서도 엔진오일이 변화가 없도록 최신 첨가제를 개발·적용하고 100% 합성엔진오일을 사용하여 고온에서도 오일 증발과 산화가 최소화되도록 하여 엔진 내 각종 금속을 보호하여 잔고장 없이 차량을 오래

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저점도인 5W40을 택하여 연비를 향상시켰다.

이 제품은 개발초기부터 SUV 승용형 디젤엔진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었으며 미국 석유협회 품질등급인 API SM 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디젤 엔진오일 품질등급인 ACEA B3, B4의 품질 등급을 능가하는 제품이다. 또한 VW 502, 505 및 DC 229.3 등의 유럽 OEM의 최신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이다.

한국발보린 관계자는 “터보 SUV는 주5 일제로 늘어난 여가와 편리성, 경제성 때문에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SUV 차량을 소유한 고객의 욕구를 반영해 개발된 제품으로 SUV차량 소유자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내다 보며 “앞으로도 터보 SUV외에도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자동차의 특성별로 특화된 합성엔진오일을 개발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겐다.”라고 말했다.

발보린(Valvoline)은 미국 굴지의 석유화학 업체인 애시랜드(Ashland)사의 자회사로 1866년 세계 최초로 엔진오일을 개발한 미국의 대표적 자동차용 윤활유 회사로 세계 140여개국에서 합성엔진오일, 자동차용 캐미컬 제품의 고급 브랜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